

직장불자회 연합회보 창간

월간 '직장불교'... 법문·수기등 '신행길잡이'

조계종 포교원 "희망단체 회보발행 도와요"

직장 직능 불자회 회원들의 신행 길잡이 역할을 할 연합회보 월간 <직장불교>가 창간됐다. 조계종 포교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탄생된 <직장불교>로 인해 직장 직능단체 불자들의 회보 제작이 좀더 쉬워진 전망이다. 포교원은 자체적으로 제작이 어려워 회보 발간이 중단됐던 단체들을 비롯해서 회보 창간을 희망하는 불자들의 신청을 받아 회보를 발간해 줄 계획이다.

자로 구성됐다. 이들이 편집회의에서 매월 편집방향 및 필자를 선정하게 된다. 연합회보 발행을 위한 편집진이 구성됨으로써 연합회보의 내용이 좀더 알차게 꾸며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기존 회보들이 필자를 구하지 못해 명맥만 유지하거나 폐간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연합회보의 내용은 편집팀에서 담당하는 공용기사와 각각의 단체에게 할애되는 개별단체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직장단체 불자들은 권두언과 단체소식만 준비하면 회보를 발행할 수 있다. 제호도 해당 불자회에서 요청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한편 <직장불교>는 직장직능 불자회 회원들의 원고를 가능한 많이 소개할 예정이다. 원고의 내용은 신행생활에서 느껴 온 단상이나 직장 생활 에피소드, 유머 또는 남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신행수기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한다는 것. <직장불교>를 단순한 소식지뿐 아니라 직장 불자회 회원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인불자연합회는 제호를 <반야>, 대한중속초경 석불회는 <석불회



>로, 철도청 범우회 연합체인 철도청 불교신행단체들은 <범우회보>로 제호를 바꾸고 각 회 소속을 보강해 회보를 제작했다. 대한불자가수회, 병원불자연합회, 도시철도공사 범우회 등도 제호를 바꿔 회보를 갖게 됐고 전국교정인불자회, 구로승무사사무소 범우회 등 자치적으로 회보 <밝은소식> <성불>을 발간해왔으나 이번에 포교원의 지원을 받아 회보를 전국 새단장했다. <직장불교>는 원하는 불자들의 신청을 받아 다양한 제호로 제작될 방침이어서 발행 부수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정불회 백양사 순례

공정거래위원회 불자들의 모임인 정불회(회장 강명수)가 15~16일 백양사로 춘계수련회를 다녀왔다.

공정산악회, 정불회, 경성불자회 등 37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번 춘계수련회에서는 철야정진으로 신심을 다졌다. 16일에는 백양사 경내를 둘러보고 상화봉을 등반하고 산내 암자인 약사암 등도 참배했다. (02)507-1465

반야 라이온스 성금전달

서울반야라이온스(회장 강학일)는 18일 청진장 3층에서 4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종교구 부의탁노인 조영래씨(75)에게 봉사금을 전달했다. 정암스님(법왕사 주지)은 "불교를 진정으로 공부하려면 학문이나 학문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며 "진정한 불교공부는 체험에서 우리나라는 것으로 체험없는 공부에는 겉대기일뿐 불교의 진수를 결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관차범우회 호도관광

청량리 기관차 승무사사무소 불교범우회(회장 장만식)는 28일 노인불자 40여명을 모시고 호도관광을 겸한 사찰순례를 경기도 대성리 상락향 수도원으로 떠났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중계노인복지관 노인불자외의 호도관광은 봄 가을 두차례 사찰순례로 이루어져왔다. 중계노인복지관과는 자매결연을 맺은지 4년 됐다. 한편 22일에는 청량리 기관차 승무사사무소 불교범우회의 삼일지도법사 허기림 기관사의 무사고 1백만킬로 달성 기념식이 청량리 역에서 거행됐다. (02)965-9221

KBS불교연구회 야외법회

KBS 불교연구회는 30일 여주 목야박물관 등지를 돌며 야외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야외법회는 원주 KBS와 연합으로 봉행될 예정이다.

성북 승무사사무소 안전캠페인

성북승무사사무소 범우회는 18일 승반부 인회와 함께 석계역에서 안전운행 캠페인을 벌였다.

반야회 상덕스님 초청법회

한전 반야회는 27일 오후 6시30분 한전 별관 1층 세미나실에서 상덕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갖는다.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박우재 (21세기 보리수회 대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선정에 드셨다. 보리수는 불교의 상징인 성스러운 나무이다. 깨달음의 나무인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의 나무가 우리나라 전국 사찰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원(願)이다. 그 원을 이루기 위해 나는 요즘 보리수를 우리나라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1세기 보리수회'라는 모임까지 만들었다. 5년생 이상인 보리수 묘목 10만그루를 경기도 광주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다.

89년 히말라야 원정으로 네팔과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를 느끼고 싶었다. 이후 10여년을 매년 5개월이상 네팔에서 '만바하두루'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 부처님이 태어난 땅 인도에서 불교를 만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나무 보리수의 중요성을 느꼈다. 보리수 아래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접한 후 인도와 네팔을 돌며 성지순례를 하는 한국 스님들에게 보리수를 선물하기 시작했다.

서 내가 선택한 것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4년제 정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시간은 모자랐다. 때문에 방송통신 대학을 선택해 2000학번으로 농학과에 편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보리수와 성지에 정각을 이루신 부다가야의 보리수가 다르다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보리수는 사실 진짜 인도 보리수가 아니다. 중국이 원산지인 보리수 혹은 할피나무가 보리수로 불

려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보리수가 자랄 수 없어 할피나무를 심어 이를 보리수라 불렀다. 이것이 불교유입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들어



사찰마다 보리수 울창했으면...

그렇게 시작한 보리수 선물이 이전 보급이 되었다. 인도 보리수를 우리나라에 보급하면서 새록 새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된다. 1500년을 살수 있다는 장생 식물 보리수는 난(蘭)처럼 사계절 모두 푸른 잎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날 나는 네팔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한해 두해 전 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보리수를 보면서 마치 부처님의 법문이 널리 퍼지는 것같은 환희심마저 든다. 네팔과 인도를 수없이 오고 갔건만 올내는 유달리 마음과 몸이 한없이 가볍다. 보리수는 부처님과 수많은 고행자의 금강좌 후 정각을 이룰 수 있게 그늘로가 비를 피하게 한 나무이다. 내가 하는 일은 그 보리수를 금수강산 우리나라에 심어지게 노력하는 것뿐이다.

와 역시 보리수라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알게 되면서 더욱 인도 보리수 보급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다.

인도 부다가야에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자리에 의연하게 서 있던 나무 보리수. 반야이라 불리는 보리수를 깨달음을 얻는 보리수를 한국으로 들여와 묘목을 분양하면서 희망과 행복을 나눠주는 것 같이 마음이 뿌듯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보리수 묘목 나눠주기 현대의 새로운 불교운동으로 정착시키고 싶다. 또 청소년들에게도 보리수 보급운동을 확산시키려고 한다. 부처님의 땅 네팔을 찾아가 부처님 성지와 보리수를 견학할 수 있도록 트래킹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성지에서 직접 부처님 숭경을 느끼고 보리수를 통해 생명과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리수 보급에 앞장서면서 내가 너무도 보리수에 대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리수에 대한 책도 찾아보며 공부를 했다. 그러나 혼자 하는 공부에는 한계가 있었다. 나무에 대한 공부를 좀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었다. 그래

재정이 어려운 사찰과 포교사업의 목적으로 마하보디사원에서 자라고 있는 보리수의 5대손쯤 되는 나무를 새천년 불자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보리수 묘목 나눠줄 때는 불교 포교의 새로운 불꽃이 될 것이다.

7천여부가 제작된 <직장불교> 창간호에는 조계종 중정 해암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사찰순례기, 불자 칼럼, 경전이야기, 신행수기, 직장 직능법회를 찾아서, 벽화로 읽는 불교이야기, 건강상식 등 다채로운 소식들이 가득 들어있다. 또 직장 직능 불자회 동정에서부터 법회 일정이 일목요연하게 들어있는 일정표도 실고 있다.

<직장불교>의 편집진은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 출판사, 도시철도공사 범우회,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병원불자연합회, 철도청 불교신행단체, 한전반야회 등의 편집 실무



◇ 'OK BUDDHA'에는 사이버 동자승 아미타가 살고 있다.

불교만화 클릭하세요

'OK BUDDHA'...경전·설화등 소재 다양

최박한 불교만화계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불교만화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만화가 김선아씨가 만들어가는 'OK BUDDHA' (<http://myhome.hanar.net/~y415885/main.html>)가 바로 그곳이다. <법보시>에 불교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김씨의 불교만화에 대한 도전이 몇몇이 이 사이트에는 사이버 동자승 아미타가 눈에 들어온다. 아미타는 'OK BUDDHA' 세계에 있는 작은 사찰 관음사에 살게된 아기로 미래의 큰 스승이 되리라는 예언을 받은 몸이다. 사이버 동자승 아미타의 모험, 전사관을 비롯해 사이버 보시하기 등을 통해 아미타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만들어진지 얼마되지 않아 사이버 보시 코너의 보시물에 관심이 쏠려지는 양 있지만 앞으로 보시물을 비롯해 차근차근 채워나갈 예정이다.

'OK BUDDHA'에는 불교설화를 바탕으로 한 우파사나의 상불상·하, 부처님의 가피 등의 만화, 진리의 빛, 연기법 등의 카툰, 만화로 보는 경전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 등이 실려있다. 풍자 만화 '호호동자의 통침'과 불교소재 단편소설 등도 눈에 띈다.



현대 불자회 월웅스님 초청 대법회

울산 현대자동차 불자회(회장 박오규)는 19일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월웅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했다. 월웅스님은 '사랑과 자비와의 만남'을 주제로 설법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동한 울산신행단체연합회장, 노동직 울산지역불교문화위원장, 최복원 경륜회 회장, 서진대 정토사신도회장, 이진실행 연합회장, 강정호 변호사 등 비록 현대자동차 임직원 4백여명이 참석했다. <원행생 울산지사장>

클릭! 새 홈 페이지

- 예토(<http://cafe.daum.net/yeato>)-4월13일 개설. 시립인천대학교 불교학학회 예토 회원들의 방.
- 진야회(<http://cafe.daum.net/jeana>)-4월12일 개설. 대구대학교 불교학학회 진야회의 홈페이지. 법회공지 등 공지사항 수록, 회원 개인홈 링크.
- 서울 불교 청년(<http://cafe.daum.net/buddhist>)-4월9일 개설. 서울불교청년회 홈, 청년회 소식, 불교토포방, 사이트링크 등.
- 대전지부 산하 선재지회(<http://cafe.daum.net/ddusen>)-4월11일 개설. 대덕대 대불련 선재지회의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원효성사 열반 1314주년 추모대재

5월 3일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시며 대승행자로서 화쟁통교의 한국적 불교를 영도하신 원효성사께서 일대사 인연을 마치시고 열반에 드신 지 131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성사께서 남기신 위대한 가르침을 되새기며 재조명하고자 고승대덕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추모대재를 봉행코자 하오니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추모의 향을 시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 일 시 : 불기 2544년 (2000) 5월 3일 하오 2시
- ▶ 장 소 : 용산구 효창공원내 원효성사 동상앞
- ▶ 행사문의 : ☎ 02)732-4885, 735-0501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서정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송무진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송무진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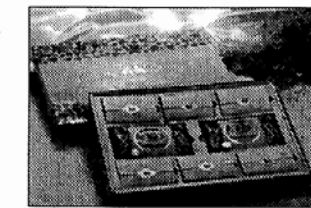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암작용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합니다. 태아가 임부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 령 사 례

▶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전통은 쉽게 나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잔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랄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매달되는 중상(○)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장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좌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땀이 많이 나고 있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는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 16 목이 바짝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1가지 이상 매달되는 문은 즉시 문의하십시오